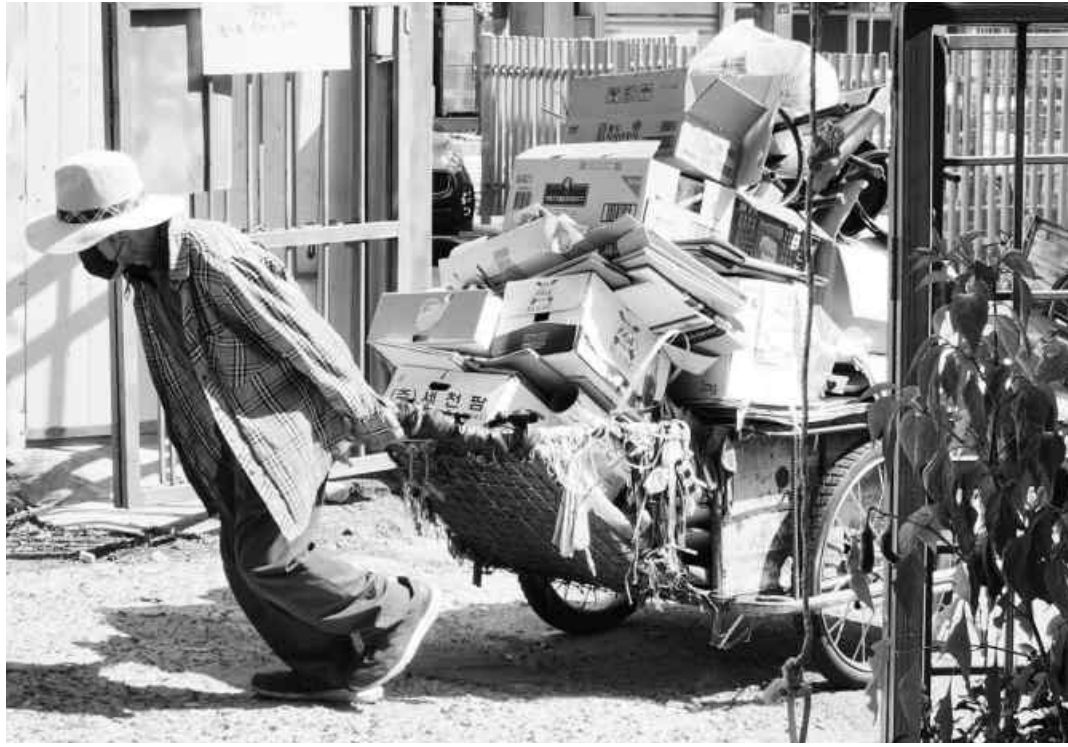


고물값만 ‘나홀로 하락’...취약계층 ‘생계 한숨만’

광주 폐지 줍는 노인 따라가보니

코로나에 물량 늘고 수요는 줄어 폐지값 1년새 kg 당 154→126원 하루 12시간 일하고 겨우 3만원 광주·전남 폐지 줍는 노인 1196명 “밥값은커녕 용돈벌이조차 안돼”

한 시간 동안 걷는 거리 1.3km. 한 시간 동안 걷는 걸음 3154보. 20년 동안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정현기(73·광주 북구)씨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움직여 줍는 폐지는 32kg에 달하지만 정씨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고작 2600원이다. 30여년 전 갑자기 중증 청각장애가 생긴 정씨는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아 생기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씨는 새벽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넘게 70kg이 넘는 리어카를 끌고 광주시 북구 오치동을 헤매고 다닌다. 폐지를 가득 담은 리어카 무게가 140여kg에 달한다. 가득찬 리어카를 끌고 밤까지 하루 5~6차례 고물상을 왕복해 그가 손에 쥐는 돈은 3만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지난 5일에도 정씨는 여느때처럼 해가 진 오후 8시가 다 돼야 텅빈 리어카를 끌고 혼자사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날 13시간 동안 16.9km, 4만여 보를 걸었다. 열심히 폐지를 모으느라 손에 상처가



고물을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정현기(73)씨가 145kg가량 되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있다.

생겼지만 폐지 팔아 받은 고깃한 천원짜리 지폐 수십 장과 동전을 호주머니에 담을때는 행복하다고 했다. 들지 못한채 차로변과 골목길을 누비다 보니 교통사고 등 위험천만한 순간도 많이 겪고 있지만, 정씨는 “그래도 난 수십 년을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 벌이가 나쁜 편이다”면서 “몸이 건강하니 이렇게 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웃음 지었다. 이런 정씨에게도 최근 걱정이 생겼다. 연일 물가가 치솟는데 정씨의 밥벌이 수단인 고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찬바람이 불면서 폐지와 고물을 주워 하루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차상위계층 노인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6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재활용가격을 보면 전남지역 폐지(신문지) 가격은 지난해 8월 kg당 156원이었으나 1년 만에 141원까지 떨어졌다. 폐물관리 가격도 지난해 8월 kg당 154원에서 올해 126원까지 떨어졌다. 폐지 뿐 아니라 일상에서 수집할 수 있는 고철과

캔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철은 지난해 8월 kg당 428원에서 338원까지 떨어졌고 캔은 386원에서 258원까지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의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유모차에 폐지를 담아 파는 손영주(여·63)씨는 “전에는 밥 한 끼라도 사 먹을 돈이 나왔는데, 지금은 오로 밥값은커녕 용돈조차 안 된다”면서 “생계를 위해 고물을 줍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고공행진중인 원자재 가격과 달리 고물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 쓰레기들이 늘어 버려지는 폐지와 재활용이 늘고 있는 반면에 고물 줍는 사람들 또한 늘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차상위 계층이 아님에도 부업으로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파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이 광주지역 고물상의 설명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황복순씨는 “고물 가격이 코로나 전에 비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졌다”면서 “마진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값이 싸면 고물을 가져오는 분한테도 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이 1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km이었으며,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나타났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학동 참사’ 조합장 등 7명 기소 의견 송치

17명도 이달 내 검찰 송치 광주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광주경찰청 내부패널제수사대는 6일 뇌물 공여·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임원을 비롯해 총 7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합장은 정비업자로부터 재개발지역 분양권 확보 등에 도움을 받고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아파트 2채를 정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학동4구역 재개발 비위를 수사한 경찰은 총 2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중 5명은 검찰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경찰은 나머지 24명 중 이날 7명을 송치했고 17명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모두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학동 재개발 비리를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면서 “관련자들을 모두 검찰에 넘긴 후 수사 성과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임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찾은 하토야마 전 총리 “일본 과거사 속죄”

나주, 5·18민주묘지 등 방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6일 광주·전남의 독립운동 기념관과 5·18 사적지 등을 방문하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속죄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씨(56)와 동행해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남파고택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나주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명록에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학생들의 영혼이 영원히 평온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관계자를 만나서는 “시민지 시대에 일본인들이 한국 조선인들에게 차별을 한 일에도 다시 한번 알 기회가 됐으며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다”며 “당시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은 분들이 더는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일본이 계속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가는 “민주화운동을 위해 애쓰신 영웅들에게 감사드립니다”는 글을 방명록에 남겼다. 이후 운산정 역사 교육, 박관현 역사 교육을 방문해 1980년 5월 당시 광주 상황을 전해 들었다. 행방불명자 교육, 유영봉안소 등을 찾아 참배하고 추모관을 둘러 오월 역사를 돌아보기도 했다. 전남대학교를 방문해 ‘유봉포럼’ 연사로 나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6일 광주시 북구 오정동 5·18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우애에 기반한 동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양국 간 관계회복 방안 등 이야기를 풀어냈다. 한편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소속으로 집권해 9개월간 내각을 이끌었으며 대표적인 친한·지한파 인사로 통한다. 정계 은퇴 후인 2015년 일제 강점기의 어두웠던

역사가 재현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다. 2018년에는 경남 합천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나 무릎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진도군 고사면 옥곡산에서 열린 원형제에 참석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중단없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현직 군수들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잇따라

보성·영광군수 무혐의 처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현직 군수들에게 잇따라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 내부패널제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철우 보성군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개인인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당원 명단을 관리하고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지역 주민 1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수사를 이어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년단체 행사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아파트 단지서 5세 아이 차에 치여 중상

남부경찰, 30대 여성 입건 조사

아파트 단지에서 5세 아이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남부경찰은 6일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여·3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을 하다 B(5)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서행하며 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뒷편에 있던 B군이 갑자기 뛰어나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2타경 51130	1	여주시 소흥동 5-1 104동 12층 1207호 [고] 아파트	아파트	174,000,000 174,000,000	
2021타경 7129	2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1 6545㎡	임야	2,568,777,000	일괄매각, 경계측량요
2021타경 51669	3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3 496㎡	임야	2,568,777,000	
2022타경 1043	1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일괄매각,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제한, 경계측량요
2021타경 7129	1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1 6545㎡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2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2 1785㎡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3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3 496㎡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4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4 397㎡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5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8-5 4066㎡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6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9 893㎡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7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89 7333㎡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8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2 3628㎡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9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3 5497㎡	임야	2,568,777,000	
2021타경 51669	10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1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2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3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4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5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6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7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8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19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2021타경 51669	20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91 3323㎡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임야	1,593,800,7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21타경 7129	2	여주시 소흥동 1167 450㎡ [케이엔에이치산업개발부/10지분전부]	도로	992,024,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51669	3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0-1 688㎡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4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1-2 1461㎡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5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4 460㎡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6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5 2801㎡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7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5-2 860㎡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8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6 1342㎡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9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7 248㎡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10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8 390㎡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11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49 701㎡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12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50 721㎡	전	992,024,000	
2021타경 51669	13	여주시 화양면 용운리 산251 926㎡	전	992,024,000	
2022타경 1043	1	여주시 울촌면 상봉리 산18-1 327㎡	답	23,328,000	일괄매각
2022타경 1043	2	여주시 울촌면 상봉리 산19-1 126㎡ [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 소관기관에서 사실통합회신세의하면연상회복명령가능성이있으며연상복구계획서실천가능성이있으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가능하다고하므로매수신청시해당문서제출의하에확인요[목록전, 경계측량요]	답	23,328,000	
2022타경 1104	1	순천시 왕지동 185-1 645㎡	답	65,145,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당(현황특전)]
2022타경 51192	1	여주시 화정면 개도리 산76 14281㎡	임야	29,990,100	일괄매각요
2022타경 3049	1	사용본거지:순천시 장지동1길 80, [연향동] 등록번호:전남07가8564 기종:기종기 연식:1996	중기	60,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동전리457
2022타경 53426	1	사용본거지: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32 등 2층:전남70자3176 차명:뉴-카운티 연식:2014	자동차	27,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이수자동차매대상사
2022타경 53785	1	사용본거지:고흥군 불래면 사양선정길 133-12 등록번호:92노0388 차명:메기트 연식:2005	자동차	35,000,000	본관:순천시서면압곡리568-1,순천자동차매대상사
2022타경 54795	1	사용본거지:미추홀구 석마위로80번길 10, 202호 [주안동] 등록번호:52기2823 차명:E0900 연식:2016	자동차	35,000,000	본관:순천시해룡면복성길3,이수자동차매대상사

● 공판 부당판결의 효력 표시는 실례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부담, 기항부담은 순번에 관계없이 면적비율에 의해서 소멸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비용: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의 1%를 초과하여 매수인이 부담한다.
 ③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매각대금의 1%를 초과하여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⑤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⑥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⑦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⑧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⑨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⑩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10%를 초과하여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2022.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호과 신영민